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76년사」 발간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 집대성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제도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한산업보건협회 76년사」를 발간했다.

협회는 올해 1월에 76년사 제작을 완료한 뒤 3월에 주요 도서관, 의과대학, 간호대학,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 산업보건 주요 관계자들에게 책자를 배포했다. 협회 76년사에는 해방 이후 산업보건 상황, 그리고 조선산업보건협회의 창립(1947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말까지 협회가 걸어온 76년의 역사가 담겼다.

특히 새로운 기록의 발견과 역사고증을 통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출발점을 기존 1963년에서 1947년으로 앞당겼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공백기로 알려졌던 해방부터 1963년까지의 시간을 채웠다는 의미를 지닌다.

「대한산업보건협회 76년사」는 발간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연혁화보, 통사, 부문사, 산하기관소개, 부록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백헌기 회장의 발간사에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안중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이 축사를 실었다.

백헌기 회장은 발간사에서 “우리나라 산업보건 제도를 만들어 낸 협회의 역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며 “지나온 길을 토대로 산업보건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2024년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3월18일 출범식, 16개 시도지역본부 순회 예정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한국노총이 2024년에도 전국적인 헌혈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은 3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2024년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은 협회와 한국노총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협회와 한국노총은 16개 시도지역본부를 순회하며 헌혈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백헌기 회장은 “한국노총의 조직적인 헌혈 덕분에 조합원과 산재노동자 아동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150만 조합원과 함께 헌혈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마음혈액원 홍보대사인 이윤아 SBS 아나운서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헌혈 캠페인에 한국노총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 대진단 캠페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지역센터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된 것에 맞춰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3월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인쇄골목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직업병안심센터와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기관들은 2인 1조로 인쇄골목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산업안전 대진단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3월 19~21일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열린 주요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했다.

글 최아름 서울지역본부 사내기자

충북산업보건센터



충북산업보건센터는 2월 29일 청주 분평사거리에서 충북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산업안전대진단 확산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40개 업체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참가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확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글 이용현 충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남부산업보건센터



남부산업보건센터는 3월 12일 부산 가덕도 연대봉에서 지역 주요 단체들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 결의대회 및 기원제를 열었다. 참가단체들은 노사민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낭독하고, 가덕도 연대봉 정상에서 안전지원제를 지냈다. 남부산센터와 함께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부산본부, 지역 노사단체, 안전협의체 등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글 권인혜 남부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경북산업보건센터



경북산업보건센터는 3월 20일 경북 영천시 도남공단 입구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을 위해 지역 주요 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북센터 외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도남공단 입주업체 등이 행사에 참여했다.

글 신경린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가 3월 19일 호텔스퀘어 안산 장미홀에서 열린 안산·시흥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출범식에 참여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행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홍보,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경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단장을 맡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서부센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산시, 시흥시,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과 노사단체, 업종별 협의회,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글 박호중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